

육상풍력 156.28MW 3개 사업 선정... 2025년 하반기 경쟁입찰 결과 공개

- 선정사업은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추진되어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MW 규모로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2월 2일 확정하여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상풍력 입찰용량은 230MW 내외로 공고, 176.28MW 4개 사업이 입찰에 참여했고, 평가*를 거쳐 총합산 156.28MW 규모의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25년 하반기 육풍 입찰 공고문 : 접수용량 기준으로 경쟁률이 1.1:1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결정, 평가지표의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미선정 가능

이번 입찰 접수는 지난해(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2026년) 1월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사업내역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1차는 산업·경제효과 및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바람이라는 공공재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육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육상풍력 경쟁입찰에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www.knrec.or.kr, 2월 2일 12시 게시)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안내.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5390)
		담당자	사무관	양승조 (044-203-5383)



1 제도 개요

- (주요내용) 공급의무자* 선정의뢰에 따라 낙찰자(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급의무자와 낙찰자는 고정가격으로 20년간 REC** 매매계약 체결
 - * 공급의무자는 신재생법 제12조의5에 따라 일정 발전량 이상(26년 기준 15%)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자로, 한수원, 중부발전 등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29개사
 -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
- (계약방식)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
 - * 선정사업자의 입찰가격(SMP+1REC)에 따라 REC 매매가격이 결정되며, 사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가격으로 계약함으로써 안정적 매출 확보
- (입찰대상)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한 풍력설비

2 추진 절차

- RPS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한가격, 선정용량 등 결정
 - * RPS 운영위원회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하며, RPS 관련 설비확인 기준변경, 의무공급량 산정, 경쟁입찰 상한가, 선정용량 결정 등 수행
- 에너지공단 입찰공고 및 접수, 입찰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풍력입찰위원회는 제도, 정책, 안보, 비용평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입찰사업자 평가, 사업계획 미이행시 후속조치, 계약체결기간 연장, 참여제한 검토 등 수행
- 선정된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REC 매매계약 체결

3 평가방식 및 기준

- (비가격평가) 산업·경제효과, 거점·유지보수, 안보, 계통, 주민수용성 지표 평가를 통해 공고용량의 120~150% 범위내에서 선정
 - *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풍력입찰위원회 의결)
- (가격평가) 비가격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가격을 계량 점수화 후 합산(비계량 50점, 가격 50점)하여 최종 선정